

NCC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 영 숙 선생

“

생명문화운동이란
모든 피조물이 제 있을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지요.

”

글 · 노 영 회 / 시인

그 네는 한으로 눌러온 이 땅의
수많은 이름없는 여자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인류의 구원은 여성적인 인간한
테 있다.”

고 말이다. 같은 여자로서 신명이
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집안에서
도 일터에서도 차별대우를 받아온 여
자들한테는 그야말로 시원한 물줄기
같은 미래론이 아닌가 한다.

절벽처럼 꼭 막히고 답답한 20세
기 말의 세계 앞에, 게다가 뒤죽박죽
인 이 나라의 운명 앞에 그네의 평
화운동 이야기는 꼭 필요한 약인 것

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도 여성
에 의해 준비됐다고 볼 수 있어요.
여성의 모성적인 성품은 예수님의
삶과 제일로 닮았지요. 보세요. 지
면서 이기고, 싫으면서도 꺾은 일
을 말없이 해내고, 대지와 같이 받
아들이고, 키우고, 남을 위해 자기
를 쥐고, 바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성품이에요. 우리 여자들은
몸에 배어 있잖아요.”

박 영숙 선생은 ‘자각 있는 수고
함’이란 말을 썼다. 작고 별 볼일 없
는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세계건설
에 연결돼 있다는 철저한 자각, 바로
예수님이 살고 가신 길이라고 거듭



“우리 한국 여자들은
아끼고 사는 걸 훈련
이 잘 돼 있지만 중요
한 걸 기본 생존권 이
없는 이들과 나누는
삶이지요 내가 벌어
들이는 수입에 맞는
분수가 아니라 인간으
로서의 분수에 맞아야
해요.”

거듭 강조했다. 가사노동을 무시한 미국의 여성운동을 다소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그네의 이런 철학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여성운동은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곤란하다고 모성, 모성만이 모든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계해야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여자들이 가족만을 사랑하는데 빠지면 더 위험하지요. 종래의 가족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민족과 인류를 위한 모성애로 발전해 가야만 해요. 그런 사랑의 공

동체만이 역사의 대세를 꺾을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우리의 삶의 수준을 내리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지녀야 할 겁니다.”

평화운동만이 우리 민족과 인류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선생의 입술에선 자연스럽게 거침없이 평화, 생명, 평등, 민주주의, 통일, 예수, 여성이란 말이 쏟아졌다. 그런 가치들이 토론되고 실천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리에 몸소 있지 않았으면 거

론되지도 않았을 것들이 마구 뛰놀았다.

“3선개헌 반대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배우고 많이 의식화됐지요. 인권운동하는 이들과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의 처지를 알게 된 덕택이지요.”

선생의 예리한 판단력과 직관은 부드러운 천성과 잘 어울려져 대화의 문을 활짝 연다. 시대에 관한 것이든 우리네 여성문제에 관한 것이든 시원한 의견을 제시한다.

-언제부터 이 평화운동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

“기장여신도회 활동을 하면서 생명운동에 매력을 느꼈어요. 핵설치 반대와 사회정의 문제, 노사문제와 학원문제까지 두루두루 관심을 가졌죠.”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벌였습니까?

“단순하게 생활하는 운동을 했지요. 우리 한국 여자들은 아끼고 사는 건 훈련이 잘돼 있지만 또 중요한 건 기본 생존권이 없는 이들과 나누는 삶이지요.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맞는 분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분수에 맞아야 해요.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진 건 인구문제와 세제운동이었어요. 기득권 포기운동도 꽤 벌였지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자기가 가진 걸 포기하지 못하더군요. …… 결국 평화운

동이나 생명문화운동은 다 통하는 얘기인데 80년대 중반에 이른 요즘엔 기장여신도회가 생명, 평화, 정의운동의 뿌리를 하나로 보고 민족통일 문제까지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하지요.”

-생명문화운동이란 원론적인 질문 같습니다만 무엇인지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모든 피조물이 제 있을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질서대로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그 동안의 악순환을 제거하고 누적된 모순에서 해방시켜 모든 것을 창조된 모습으로 있게 하는 것이랍니다.”

-오늘날의 문명과 문화가 다 엉망이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인류의 기술문명은 인간이 무엇인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구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았죠. 기술발달은 국가주의를 낳았고, 힘이 곧 진리라는 잘못된 철학에 온 세계가 빠져버렸어요.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에게 힘의 횡포를 과시했고, 겨우 식민지에서 해방된 제3세계 국가들은 다시 군국주의 손아귀에 붙잡히게 되어 무기시장화했지요. 핵대치로 이제 세계는 멸망직전에 놓여 있어요. 깊이 들여다 봅시다. 지금 제3 세계에선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인권운동, 빈곤과 분배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의운동, 생태학적 위기극복 등 악에 저항하는 갖가지 운동이 활기를 띄고 있지요. 이 모든 운동의 근원을 살펴보면 생명을 멸시하고 짓밟은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 이미 70년대에 유엔이 경각심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유엔이 제정한 표제에서 읽어낼 수가 있어요. 73년의 인간환경 위기의 해. 74년의 인구의 해. 75년의 여성의 해. 76년의 소비자 보호의 해…… 인류의 각성을 높인 목소리로 외쳤던 거죠.

- 세계대전 이후 인류는 생명을 창조하기보다는 다 으깨었군요. 생명운동은 필연적인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비록 발전이 더디더라도 생명이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식량 문제도 이제는 심각한 것 같고 다국적기업의 횡포도 막을 길이 없고 전쟁은 더 위기감을 불러 일으키고요. 우리 나라는 특히 제한 핵전쟁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어요. 지난 2월에 치른 총선거의 유권자 58%가 20~30대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이런 생명문제를 정치차원으로 제기해 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 그렇다면 세계관이다. 다 달라

66

생명의 원리는 기독교의 원리인 ‘내가 너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너와 일치시키는게 생명입니다. 한 몸의 원리입니다.

99

저야겠지요?

“새로운 문화의 방향을 설정하는데에는 새로운 생명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사관, 세계관, 인간관, 교회관 등을 단단히 세워야 하겠지요.”

어린 아기를 잉태하고 낳아본 여자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이다. 전쟁을 일으키고 권력을 빼앗고 종교 싸움을 일으키는, 소유의 세계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은 남자들이다. 갈릴 지브란은 말했다. 미의 여신상 앞에서는 그 누구도 싸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성적인 것—아름다움과 사랑으로 드러나는—의 승리를 꿰뚫은 것이다. 남자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이제 여자들이 고쳐 놓을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도 처진 사람들—여자와 노동자들, 농민들—을 통해 인간의 역사를 뒤바꿔 놓으실 모양이라고.

선생의 평화론은 이 거대한 집단적 싸움을 통해 싸움없는 하늘 나라

를 세우는 것이다.

평양에서 일제시대인 1932년에 태어난 선생은 역사의 와중을 뚫고 살아온 이답게 전체의 살 길만을 찾고 있다. YWCA 활동(YI 탄과 대학회원 활동, 대한YWCA연합회 총무와 실행위원 역임)과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처장, 기장여성신도회 부회장, NCC 여성위원회 위원장(현직)을 두루 거친 탓으로 여성운동을 평화운동과 연결시키는데 무리가 없다. 35년을 연결같이 사회운동에 몸바쳐 왔기에.

“Y가 나를 키워주기도 했지만 75년을 전후해서 아카데미 활동하면서 달라졌어요. 난 실은 여성으로서의 억눌린 한은 없는 편이에요. 이복은 아들 위주로 키우질 않았어요. 밥을 퍼도 그냥 서열대로 쪼으니까요. 오히려 요 근래 몇년 사이 NCC에서 일하면서 피부로 여성문제를 많이 느꼈지요. 교역자 위주고 평신도는 소외당하지요. 그 중에 여자는 더욱더 소외당해요. NCC 안엔 6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 중에 여성위원회가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인 나는 실행위원회에 못들어 가고 총회 대의원 노릇도 못하죠. 결의권이 없는 위원장인 셈이에요. 우습게 차별 당하는 겁니다. 교회의 민주화도 참으로 시급해요.”

지난 6월에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여성 위원회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앞

으로 5년동안 일하게 됐는데 각 나라 실정에 맞는 운동을 벌이겠다는 것. 눌린 사람들의 시각에서 평화운동을 보려고 한다.

“필리핀은 농촌여성 문제가 심각하고 인도는 천민 여성이, 우리나라는 근로여성과 농촌여성, 빈민여성 문제가 가장 절실하지요. 대만이나 뉴질랜드는 핵이 공통문제고요.”

우리 나라 교회여성들도 이제 지난 1세기를 청산하고 평화운동에 관심을 갖고 평화운동을 연대운동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선생은 말한다.

“교회여성들이 종래의 봉사 중심의 생활을 탈피하여 교단적으로, 지역적으로, 집단적으로 실천할 때이지요. 애국 애족의 신앙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같이 이루어야 합니다.”

-여성운동도 이제 갈라지는 것 같지요?

“그렇지요. 종래의 여성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들과 젊은 여성운동체들이 이슈중심으로 나가는 것과 확연히 구분돼 갑니다. 올해는 14단체가 여대생 추행사건에 공동 대처했고, 또 79단체가 ‘유권자 선언’을 통해 총선 바르게 하는 운동을 했고, 14단체가 ‘민족, 민주, 민중과 함께 하는 ‘85여성운동 선언’을 내놨습니다.”

- 선생님은 평화운동을 위한 조직을 만들 계획은 없나요?

“아직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교회여성들과 현장에서 뛰는 젊은 사람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힘 닿는 대로 젊은이들을 돕고 싶어요.”

집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평화운동만을 하겠단다. 나보고도 생명운동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 시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을 한다. 남은 생애는 다 이 운동에 헌신하겠다는 것. 선생의 결의와 꿈이 하도 단단해서 애기만 들어도 무척 신이 났다.

다시 얘기는 생명운동으로 돌아와 그 원리를 들어봤다.

“생명의 원리는 기독교의 원리인 ‘내가 너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너와 일치시키는 게 생명입니다. 한 몸의 원리입니다. 인간관계도, 부부관계도, 국제관계도 우리의 남과 북도 생명체로 존재하지 않는 한 죽은 겁니다.

생명의 또 하나의 원리는 형평의 원리에요, 자본이든 권리든, 힘이든, 사랑이든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잘못돼있는 거예요. 처진자들을 올리는 거가 바로 이 원리에 맞는 운동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생명은 서로 나눠야만 합니다. 사랑의 세계는 나누는 것이지요, 고난도 발도 문제도 서로 나눠 잡지는 것입니다.”

- 선생님은 방금 민족의 통일문제를 생명차원에서 말씀하셨지요?

“네, 우리는 북한도 그렇고, 우리 남한도 그렇고, 너무 군사비를 써왔어요. 이제는 서로 대화 안할 수가 없지요. 일본이나 서독이 2차 대전 후에 그렇게 발전한 건 군사비가 거의 안 나갔기 때문이래요. 사실 3·8선은 우리 잘못으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함 석헌 선생 말대로 우리 나라가 세계의 하수구를 담당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지도 모르지요. 우리의 통일은 정말 빨리 이뤄져야만 해요.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핵무기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전쟁의 위험을 느끼는 한 평화는 올 수가 없지요. 유럽 같은 데서도 반핵데모가 대형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그네들의 평화운동과 우리의 평화운동과는 거리가 있어요. 우리에게겐 단순한 반핵이 아닌 사회정의운동이 더욱더 평화운동의 본령을 이루지요.”

- 선생님, 과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짐으로서 이겨야겠지요.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 그대로예요. 힘엔 또 힘으로 대결해야겠지요. 하지만 비폭력이어야죠. 또 하나는 소박하고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세계의 석유는 20~30년 밖

에 못쓰대요.”

대화를 나눈 시간 내내 나는 민족과 인류의 이름이 내 가슴에 꽂혀서 마치 화살을 맞은 사람 모양으로 흔들렸다. 선생의 평화철학은 예수님의 사상과 실천에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에 더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인류의 절반인 여성들이 평화운동에 다 나선다면 분명히 역사의 방향은 달라지리라.

“주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해요, 공해문제, 식량문제, 도시화문제, 교육문제, 인구문제, 빈

부격차문제, 다목적기업문제, 핵문제, 소비문제,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우리 여성들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는 없을것 같군요. 교회여성이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마음의 평화든 민족의 평화든 갈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그렇다면 선생 말대로 바로 조그만 것부터 평화운동을 실천하라. 고난의 땅인 이 한반도에 평화가 오도록 여성들이여, 기도하라, 일하라. 이것이 우리가 후대들한테 줄 유산인 것이다. 움츠리지 말고 용기를 갖자. *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잠실동부교회 초등부 6학년 1반)

이 명 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무엇이 기쁜 것인지 또 무엇이 제 일 복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그날부터 진리를 깨닫고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우겨됐지만 누구에게나 죄는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마음에 행복과 기쁨을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 속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 합시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됩시다. 교만하지 않고 친절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고 우리 모두 약속합시다.

어려운 일에 닥치면 기도하여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겉으로만,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씩씩하게 행복한 얼굴로 따라갑니다.